

## 산학협력관 · 기숙사 내년 1월 착공

### 지난 1일 환경영향평가 통과, 부족한 공간문제 개선 기대



산학협력관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통과돼 빠르면 내년 1월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학협력관 신축으로 깊이 있는 산학 연계 교육 및 신 공학 교육 전망과 함께 지방우수학생 유치에 탄

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의의가 있다. 산학협력관 착공은 내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완공예정일은 2011년 2월이다. 산학협력관과 기숙사는 지하 4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50,400㎡의 규모로, 2005년 학교가 매입한 테니스장 부지에 설립된다. 본래 9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기숙사 공간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 중구 주민들과의 일조량 침해 문제로 기숙사 한

층이 줄어 수용인원이 75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사업개발본부(본부장=김재환) 관계자는 "본래 기획했던 900명 수용의 기숙사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750명의 기숙사 수용인원은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맞춘 타협점이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의 3개 평가 분야에 걸쳐, 환경 정책 기본법에 규정된 환경 기준을 고려해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되어 약 1년여 간의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일조량 침해 문제로 지연된

바 있다. 신축되는 산학협력관에는 강의실을 포함해 교수연구실, 실험실습실이 신설돼 부족한 공간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숙사 내 세탁실, 체력 단련장, 매점 등이 신설돼 학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세은(사과대1) 양은 "새로 지어지는 기숙사가 지방학생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족한 학내 공간을 해결해 줄 산학협력관의 완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동국~노래자랑! 제4회 목격야제가 많은 학생들의 관심속에 지난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백성응원단인 본 행사 이전에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응원하는 모습.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28위

### 교육여건 · 국제화 · 교수연구 부문 상승 ... 평판 부문 소폭 하락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2008 전국대학평가' 발표 결과, 우리 대학이 종합순위 28위를 차지해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전국 9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교육 여건 및 재정, 국제화, 교수 연구, 평판 및 사회 진출도 부문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우리 대학은 4개 부문별 각 순위에서 교육 여건 및 재정(33위), 국제화 부문(37위), 교수연구(28위) 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평판 및 사회진출도 부문(23위)에서 5단계가 하락했다.

지난 세입금 중 납입금 비율(58%)은 지난해 83위에서 25단계가 올랐고, 교육비 환원율(66%)도 지난해 78위에서 22단계가 올랐다. 교육여건의 종합순위는 33위로 지난해 40위에서 7단계 상승했다. 국제화 부문은 외국인교수비율, 해외파견학생비율, 영어강좌 비율 등을 세부지표로 평가됐다. 우리 대학은 작년 11개, 올해 12개 등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맺으며 좋은 평가를 얻어 지난해 45위보다 8단계 상승한 37위를 기록했다. 교수연구 부문에서는 교수연구 성과를 뜻하는 지표인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 수가 22위(지난해 28위), 인문사회 교수당 SSCI, A&HCI 논문 수가 32위(지난해 48위),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 수가 43위(지난해 63위)로 평가됐다. 교수연구 부문은 28위로 평가받았으며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했다.

평판을 반영한 부문에서는 소폭 하락하며 지난해 18위에서 5단계 떨어진 23위를 기록했다. 학내외의 관계자들은 대학평가의 순위향상을 위해서는 대규모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이와 함께 교수연구 진척을 위한 내부개혁과 해외대학과의 교류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편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 RFID기술개발사업 28억 연구비 수주

우리 대학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성장 동력 기술개발사업 수주해 28억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산업시스템공학과 이종태 교수가 총괄하는 이번 사업은 'RFID 기반의 물류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을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RFID 기술은 입출고 및 재고관리업무를 무인화 및 자동화 해 물류업체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RFID 분야의 기술력 증대와 더불어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와 유관분야 취업이 기대되고 있다.

RFID 기술은 입출고 및 재고관리업무를 무인화 및 자동화 해 물류업체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RFID 분야의 기술력 증대와 더불어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와 유관분야 취업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RFID 분야의 기술력 증대와 더불어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와 유관분야 취업이 기대되고 있다.

## 금주의 동국인

### 7전8기 오뚝이 정신, 관세사 수석합격자 서유진(경영4) 양 "좌절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택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걸 붙잡고 전전긍긍하기보다 스테디 그룹에 많이 참여했어요" 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자 서유진(경영4) 학생만의 합격 노하우다. 이 말만 듣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궁금한 그녀의 수석합격 비결. 서유진 학생을 직접 만나 보았다. 관세사란 통관 절차를 대신해 주거나 관세법상의 징의·소송 따위를 대신해 주는 전문 직업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대학 입학 후 관세사란 직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이번 수석합격 결과는 지난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맺은 결실이었다. 하지만 수석합격이라는 화려

한 수석위를 얻기까지 쉽지 않은 않았다. 처음 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녀는 실패 후 좌절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다신 떨어지지 말아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어 관세사 시험 등 중요한 시험을 앞둔 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는 독이라고 충고했다. "스트레스로 시험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하루쯤 쉬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일인 것 같아요.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라며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관세사 합격은 하나의 작은 언덕에 불과해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50세가 되었을 때 세무 관련 개인사무실을 갖는 것이 작은 꿈이에요"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줄곧 자신의 합격은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얻어낸 결과라며 겸손함을 보였다. '수석합격'의 비결은 바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하는 오뚝이 정신이 아닐까. <인> jeong0424@dongguk.edu

## 영석학원, 우리대학에 영석고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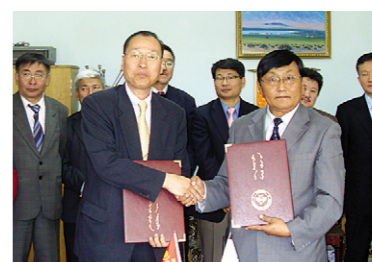
### 등문 안채란 이사장, 교육적 목적 고려해 결정

학교법인 영석학원(이사장=안채란)은 우리대학에 법인 산하 영석고등학교(이하 영석고)를 기부하기로 했다. 영석학원 안채란 이사장과 우리 대학 최순열 학사부총장은 지난 2일 오전 11시 영석고 이사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안채란 이사장은 "동국대와 영석고는 건학이념이 불교정신에 있다"며 동국대에 기부함으로써 영석고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안 이사장은 "국가에 헌납하여 얼마의 보상을 받고 영석고를 국·공립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장사를 위해 교육에 뛰어들 것이 아니기에 동국

대에 무상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석학원 안채란 이사장은 1954년도에 우리대학 국어국문과를 졸업하였으며 73년도에 우리대학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우리대학 여학사회 회장을 40년간 역임하였으며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를 6년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학교법인 영석학원 이사장으로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0년에 개교했다. 영석고등학교가 소유한 총 부지 면적은 약 1만 2천여 평이며, 17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석고등학교의 전교생 인원은 약 600명 정도이다.

## 우리대학-몽골국립대 MOU 체결

### 학생교류 프로그램 개발 ... 생명과학분야 연구협력 약속



우리 대학과 몽골국립대학교가 생명과학분야의 상호협력 약속을 강화하기로 체결했다. 생명과학대학 박정국(생명공학) 학장 등 대표단은 울란바토르

시에 위치한 몽골국립대학교와 지난달 24일 양교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생명과학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양 대학 생명과학대학은 심층적인 사업을 위해 별도로 연구협력약정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표단에 참가한 생과대 강호덕(환경생태공학) 부학장은 "국민 95%가 불차며 자원부국이기도 한 몽골과 관계를 돈독히 해 상호간 이익이 될 바란다"고 밝혔다.

지/면/안/내 2 동문예우프로그램 점검 3 중앙일보 대학평가 특집 4 에코캠퍼스 기획연재 - 3 5 문화학술총서 서평 8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8

중간고사 관례로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제1466호는 11월 3일자로 발행되오니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8. 9. 21 ~ 9. 30

<b>100만돌달기금</b>	<b>장학기금</b>
조옥자(불교신도, 10만원)	(재)대한불교진흥원(불교계, 1억원)
<b>발전기금</b>	김정민(스님, 2500만원)
박상관(서울/직원, 150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734만원)
정재철(서울/교수, 10만원)	주현진(동문, 222만6000원)
유연덕(불교신도, 5만원)	이경(동문, 3만원)
정혜련(스님, 1만원)	<b>특정목적기금</b>
<b>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b>	정각원(사찰, 277만6800원)
일현스님(스님, 10만원)	정재민(동문, 167만2000원)
김윤자(불교신도, 5만원)	김경민(동문, 40만원) 오원석(동문, 40만원) 이경락(동문, 40만원)
이규옥(동국한방/직원, 1만원)	이상진(동문, 40만원) 최덕수(동문, 40만원)
홍순아(불교신도, 1만원)	이종환(동문, 10만원)
임선화(불교신도, 5천원)	이홍화(포항병원/직원, 3만원)
	김상필(포항병원/직원, 2만원) 이규옥(동국한방/직원, 2만원)
	전영도(포항병원/직원, 1만5000원)

### 기금 참여 방법

- 무통장 입금 (예금주: 동국대학교)
  - 신한은행 140-000-64918
  - SC제일은행 107-10-119210
  - 농협 360-17-00382
- 인터넷 약정
  - 발탁기금 홈페이지(love.dongguk.edu) 접속 후 작성
  - \* 발탁기금 참여 및 문의: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 (02-2260-3300, 3793~5)

### 세제 혜택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절차

- 1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 2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 3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비처리

#### 세제 혜택 내용

1. 개인 기부 :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2.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단, 2009년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단위:원)
3. 기부로 인한 연간 소득별 절세 효과(2005년도 기준)

기부금	연간 소득 금액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1백만원	170,000	170,000	260,000	350,000	350,000
2백만원	340,000	340,000	520,000	655,000	700,000
3백만원	510,000	510,000	780,000	945,000	1,050,000
4백만원	684,250	680,000	1,040,000	1,195,000	1,400,000
5백만원	753,250	850,000	1,300,000	1,435,000	1,750,000
6백만원	856,500	1,020,000	1,560,000	1,685,000	2,100,000
7백만원	912,500	1,190,000	1,682,000	1,955,000	2,450,000
8백만원	968,500	1,360,000	2,080,000	2,215,000	2,800,000
9백만원	1,024,500	1,530,000	2,340,000	2,475,000	3,150,000
1천만원	1,070,500	1,700,000	2,600,000	2,735,000	3,500,000

\* 위 표는 1인 가족 기준이며,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46회 동대학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및 분량: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제23회 동대문학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및 분량: 시: 3편 내외, 소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 공통사항

응모지역: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경주캠퍼스 포함, 대학원생 제외)  
모집기간: 2008년 10월 20일(월) ~ 11월 14일(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일일 도착까지만 인정)
- 반드시 학교 공과대학이나 본사 홈페이지에서 검토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
- 여러 작품을 제출할 경우 검토지는 한 장만 작성
- 작품에 이름 등 신상정보 기재 금지
- 작품은 원고지가 아닌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양식으로 작성
- 총 3부씩 제출

보낼곳: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동대신문사·문학상 담당자  
문의처: 전화 (02)2260-3495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독자지원

심사결과발표: 2008년 12월 1일자 동대신문 지상예정

#### 기타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무용문 바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당선자에게는 개별통보합니다.
-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본사가 보유하고 그 이후는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사의 규정과 결정에 따릅니다.

### 동대신문사

# 동문 기부운동 활황 '시동'

## 고액기부자 조형물, 홈커밍데이 등 동문예우 프로그램 강화 예정



▲ 지난달 30일 열린 학과동문회 회장단 만찬 모습

우리대학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만 동문과 손잡기에 나섰다. 학교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문들도 학교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우선, 학과별 동문회 회장단 만찬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총동창회를 통해 동문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예전과 달리 이번 만찬은 학과별 동문회 회장들과 학교간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자리였다. 건축공학과 박민숙 동문회장은 "우리가 모교에 그동안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동문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영교 총장과 동문들은 앞으로 동문모임을 정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우리대학은 기부금 확충방안으로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다. 가장 '동국 명예의 전당'(History of 동국)은 우리 대학에 기부한 동문이나 외부 인사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고액기부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고액기부자 30명을 대상으로 'President Members' 만찬도 연다.

또한 동문예우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해 약 400여명의 동문을 초청해 다음달 13일 'Come Together' 행사를 열 계획이다. 'Come Together' 행사는 그동안 우리대학이 소홀히 했던 동문 예우

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로 동문과 대학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대학에 대한 관심과 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됐다.

이밖에 '동국아너스 클럽'을 지난 8월 말에 창단하기도 했다. '동국아너스 클럽'은 동문 기업가들을 결집시켜 우리대학에 질적, 양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국아너스 클럽'의 회원들은 일산병원 환인혜택 등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홈커밍데이는 우리대학에 입학한 후 30년 이상 동문들을 초청해 캠퍼스 투어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여는 프로그램이다.

대외협력팀 백승구 과장은 "현재 우리대학 기부금의 7~80%가 동문기부금이다"며 "동문들을 세 대별, 직업별로 나눠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유지·증

가시키는 것이 동문예우프로그램의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기부금 모금 현황은 9월 30일자로 약 38억이다.

사실 동문기부만으로 대학 재정 개선에 큰 효과를 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동문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애교심 고취와 이를 통한 고액기부자 양성 때문이다. 이미 미국 주요 대학들은 안정적인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다수의 고액기부자들이 생겨났고, 국내에서도 건국대학교가 사이버머니로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에 기부하는 모금사이트 'K나눔'을 지난 7월부터 열어 대학 기부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학내외 관계자들은 이런 동문예우 프로그램이 앞으로 우리대학의 안정적인 기부문화 정착과 동문들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이해랑 예술극장으로 재탄생 예술극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해랑 예술극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진은 무대확장, 객석구조 변경으로 바뀐 이해랑 예술극장의 모습.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 회전무대

### 투명동국

○...중앙일보 대학평가 발표가 난 29일, 기사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동국대란 이름.

우리대학 학생들은 귀신에 홀렸는지, 경쟁대학 눈을 피해 클릭킹을 한건지 의심해야 했다.

대학평가 속 감춰진 동국대, 읊추린 동국인(?)

### 노트북 자폭

○...문화관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면 노트북이 부서질 위험이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문화관에 IP가 아직도 잘 잡히지 않아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열받아서 노트북을 팡팡 내리친다고.

이에 회전무대자 왈 "또 건물 증축하는 줄 알았더니"

### 상록원 워터보이즈

○...여기는 상록원 수영장. 첫 가락, 손가락선수, 유럽계 포크와 나이프 선수들까지 잔반처리통을 향해 입수합니다. 앞친데 밀친격으로 다이빙을 하는 선수도 있네요.

식사 후 음식물을 처리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물이 튀어 피해를 주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다이빙만은 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살? 살자!

○...우울하고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살면서 누구나 겪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자살이 아닙니다. '살자!'입니다.

## 전국체육대회 개최 야구부·농구부 출전

야구부(감독=김학용)와 농구부(감독=서대성)가 오는 11일부터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야구부는 서울 대표로 출전하며 오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전남 야구경기장에서 경북대표 영남대와 첫 시합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농구부는 경북대표로 출전하며 오는 12일 흥국체육관에서 부산대표로 출전한 부산외국어대학과 첫 번째 시합을 가질 예정이다.

## 교과부,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

### 교원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중요 지표로 사용 예상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반대학 교직과정 현장 방문 평가를 오는 7월에 실시한다.

일반대학 교직과정 방문 평가는 교과부가 비사범계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각 대학의 사범대학을 개편할 때 이를 객관적인 근거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에는 △1명역=교직부 발전 노력(35) 교직부 지원 체제(115) △2명역=교육과정(130) 수업(145) 교육실습(75) △3명역=교수(250) 학생(150) △4명역=수업환경(50) 교육실험실습시설 및 설비(50) 등이 있다.

이에 사범대학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에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평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고 평가 세부 항목을 세세히 점검하고 있다.

사범대학 관계자는 "사범계 내에선 앞으로 교과부가 정원을 재분배할 때 교과부가 중요 지표로 삼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평가 내용은 앞으로 교과부가 사범대학을 대체할 교원전문대학

원이나 사범계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도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는 이번 사범대학 학생들이 듣는 사범계 교직과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내일 오전 9시에 학교에 도착해 5시까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올해 12월 에 나올 예정이다.

## 졸업앨범 추가 촬영 오늘(6일)부터 실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주현욱·통계4)에서 졸업앨범 추가 촬영을 오늘(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오전촬영 희망자는 9시까지, 오후촬영 희망자는 1시까지 명진관 앞으로 모여야 한다.

각 단과대 별로 불교대·공과대·정산대·생과대는 오늘과 8일, 문과대·법과대·사범대·예술대는 오늘과 7일, 이과대·경영대·사과대는 7일과 8일에 촬영한다. 해당 단과대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촬영할 수 있다.

## 2009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모집

### 영어권, 일본어, 중국어권 해외대학 파견

국제화추진단(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은 지난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2009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희망자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환 학생은 영어권, 일본어, 중국어권 해외대학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선발 방식으로는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지원가능하며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지망대학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대학을 임의로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다.

교환학생 지원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학과(부)생 및 1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대학원생으로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총 평점 3.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성적 증명서(영문) 1부 및 어학증명서(영어권(TOEFL), 중국어권(HSK), 일본어(JLPT))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면접은 △영어권 대학=15일 오후 2시 문화관 K301 △일본어 대학=17일 오전 10시 동국관 M403 △중국어권 대학=27일 오후 3시 문화관 K204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 2학기 1차 강의평가

### 참여시 장학선발 우선권

2008학년도 2학기 1차 강의평가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부터 강의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내 장학신청이 불가능해진다. 강의평가는 우리대학 uDrim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의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장학선발과, 북미주 총동창회 초청 해외연수, 동국 해외탐방, 중무 역사 탐방 등 각종 해외 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스포츠 법학 학술세미나 17일 모의법정에서 개최

비교법문화연구소(소장=김선정·법학)가 '스포츠법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오는 17일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고대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Dimitris P. Panagiotopoulos 아테네대학교 교수가 내한해 발제를 맡는 등 4개국 학자가 논문을 발표한다. 비교법문화연구소는 올해 학술지 간행, 해외요구 초청강연회, 국제학술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 동악로에서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 청출어람?

"뭐야? 순위권에 우리학교가 하나도 없네"

"아... 공부 할 맛 안 나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발표된 다음 날 동아 내 풍경이다. 어느 샌가 이맘때가 되면 동국인들, 특히 재학생들의 마음은 허허 찡찡하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전체 순위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자보다 낮은 성적을 낸 스승에 대한 실망감이 커 보인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한해 과학 기술교수당 SCI 논문 수는 0.28 개로 43위이다. 우리대학의 교수연구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5계단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평판 및 사회진출도(23위)나 입학 커트라인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청출어람의 뜻같이 정작 사회에선 제자가 스승에 비해 더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교수들은 이런 연구역량의 부족문제에 대해 '학교의 지원이 적다', '연구 공간이 부족하다', '연구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며 연구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충분한 지원과 공간 등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교수들도 외부적인 조건보다 연구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이런 평가지표들이 계속 공개되고 누적된다면 이는 우리 대학의 실제 평판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교수들이 연구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학생들도 이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탄탄한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의 스승들은 자신의 성과와 제자들의 성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한 자성어는 이런 상황에 쓸 말이 아니다.

"뭐야? 순위권에 우리학교가 하나도 없네"

"아... 공부 할 맛 안 나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발표된 다음 날 동아 내 풍경이다. 어느 샌가 이맘때가 되면 동국인들, 특히 재학생들의 마음은 허허 찡찡하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전체 순위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자보다 낮은 성적을 낸 스승에 대한 실망감이 커 보인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한해 과학 기술교수당 SCI 논문 수는 0.28 개로 43위이다. 우리대학의 교수연구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5계단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평판 및 사회진출도(23위)나 입학 커트라인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청출어람의 뜻같이 정작 사회에선 제자가 스승에 비해 더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교수들은 이런 연구역량의 부족문제에 대해 '학교의 지원이 적다', '연구 공간이 부족하다', '연구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며 연구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충분한 지원과 공간 등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교수들도 외부적인 조건보다 연구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이런 평가지표들이 계속 공개되고 누적된다면 이는 우리 대학의 실제 평판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교수들이 연구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학생들도 이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탄탄한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의 스승들은 자신의 성과와 제자들의 성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한 자성어는 이런 상황에 쓸 말이 아니다.

## 성공 취업을 위한 2008년 4차

###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8년 4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시행을 안내하오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목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파악과 효과적인 면접 전략 수립
- 2. 교육내용
  - 가. 교육형태: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차수	일시	인원	비고
2008-2학기	4차	2008. 10. 11(토) 09:00 - 18:00	50명	

다. 교육장소: 명진관 A103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및 강사
08:40-09:00	등록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인터뷰스킬	전문강사
10:00-12:00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12:00-13:00	점심	산책형 식당	
13:00-15:00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인사 담당
15:00-18:00	인사담당	실전면접 + 피드백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18:00-18:20	신문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가. 모집대상: 3, 4학년 및 기졸업자

나. 모집기간: 2008. 10. 1(수)~10. 7(화)

다. 선발인원(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 4. 신청장소: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 5.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6. 선발방법: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 7. 선발자명단 공고: 2008. 10. 7(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 8. 기타사항: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2260-3055)로 문의바랍니다.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2008문화상품 기획·창작공모전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은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통합인문학 기반의 차세대 문화인재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화 기획·창작 능력 증진 및 관련 분야로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 문화상품 기획·창작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 신청자격: 2008학년도 2학기 문과대학 및 문화 분야 연계전공(문화학, 문화공학, 문화기획) 이수 재학생
  - 신청단위: 개인 또는 단체(2~5명)
- 신청 및 접수기간: 2008. 10. 20(월) ~ 10. 31(금)

- 공모 부문 및 주제
  - 문화상품 기획
    -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학과 전통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지식, 교육, 문화 콘텐츠 기획
    - 지역적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획
    -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문화이벤트 기획
    - 현존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고객으로 하는 조직 브랜드 기획
    - 현재 유행 중이거나 유행 예정인 상품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상품 디자인 기획
    - 기타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출시할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콘텐츠 기획
  - 디지털 문화콘텐츠 창작
    - 디지털 시화(詩畵): 시, 배경(동영상/애니메이션), 음악을 결합한 플래시 콘텐츠
    - 동영상: 문화적 소재로 제작한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광고 등
    - 웹 콘텐츠: 문화적 소재로 제작한 웹 콘텐츠(웹페이지 및 웹툰)
    - 플래시 애니메이션: 문화적 소재로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 기타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디지털 창작물
- 제출 기준 및 형태
  - 문화상품 기획: A4 규격을 중심으로 참가팀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기획의도, 기획내용,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문화상품기획서' 제출
  - 문화콘텐츠 창작

분야	시간(분량)	제출파일	제출형태
디지털 시화	5분 미만	mov, avi 파일	CD로 제출 화면해상도 : 640×480 pixel
동영상	10분 미만	mov, avi 파일	
웹 콘텐츠	4페이지 이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5분 미만	swf, exe 파일	
기타	5분 미만		

- 심사항목 및 배점
  - 독창성 및 창의성 30%

- 완성도 30%
- 문화 관련성 20%
- 상품성(기획안/디자인 및 기술성(창작)) 20%

- 수상작 발표: 2008.11.10(월)까지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본 공모전 금상수상자에게는 『2008 동국대학교 해외문화 체험교육』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함.

### ■ 시상내용

수상명	선발인원	문화상품기획	문화콘텐츠창작	계	시상내용
금상	1	1	1	2	각 장학금 200만원 및 상장
은상	2	2	2	4	각 장학금 100만원 및 상장
동상	4	4	4	8	각 장학금 50만원 및 상장
장려상	6	6	6	12	각 장학금 30만원 및 상장

- 유의사항
  - 미 발표작으로 관련 기관 또는 행사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본 사업단에 귀속됨.
  - 타인저작권 침해 작품, 제작사실이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상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입상을 취소함
  - 출품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제출물(신청서 접수시 제출)
  - 문화상품기획:
    - 가. 공모신청서, 문화상품기획서 각 1부.
    - 나. 산출물 CD 1부
    - CD 구성 내역: 공모신청서, 문화상품기획서 등 과제 수행 시 제출한 모든 문서 및 과제 산출물 디지털 파일
  - 문화콘텐츠창작: 문화콘텐츠 창작 CD(공모신청서 포함)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 기획사업팀(예산관 2층 문화학술원 행정지원실)
  - 연락처: 2260-8644

- 첨부서류
  - 공모 신청서(문화상품 기획서 부분) 서식
  - 공모 신청서(문화콘텐츠 창작 부분) 서식

##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

중앙일보 실시 '2008 전국대학평가' 어떻게 봐야 하나

# '제자리걸음' 학교순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교육재정 확대 급선무 ... 교수연구 진작시킬 대책도 절실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2008년 전국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종합순위 28위를 차지해 작년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대학은 △교육여건 및 재정 △국제화 △교수연구 부문에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평판 및 사회진출도 부문에서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올해로 15번째 시행된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제화 부문 70점,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 100점, 평판·사회진출도 부문 110점, 교수연구 부문 120점으로 총 400점 만점 기준의 총점제를 도입했으며 총 92개 대학이 참여했다. 올해 평가는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 △교수연구 부문에서 기존의 현장실습강좌 참여학생 비율과 과학기술교수 당 국내논문 게재 수 항목 대신 세입대비 기부금 비율과 해외과학기술 논문인팩트 팩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리대학의 경우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통합돼 평가됐고, 평판 및 사회 진출도를 제외한 부문별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약간씩 상승했다. 인문 계열 중심 대학 순위도 10위권 안에 들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순위는 20위권 밖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제화, 교육여건 부문은 소폭 상승

대학평가 발표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지난해 45위였던 국제화부문에서 37위를 기록했다. 이 부문의 평가항목은 △외국인교수 △외국인학생(학위과정) △해외과거학생 △영어강좌 △외국인학생(교환방문) 비율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외국인학생(교환방문) 비율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 올해 해외학술교류 협약, 서울캠퍼스의 영어강좌 수, 해외교환학생 파견비율이 지난해보다 상당부분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작년 국제화부문이 대학평가에 도입된 후부터 모든 대학들이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대학의 경우 그동안 유지해오던 순위엔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우리대학은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외국인 입학생에게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해주는 것 외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학생 전용 기숙사 건설, 홈스테이 제공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설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국제교류팀(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 김상유 계장은 "앞으로 외국인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캠퍼스 내 인터내셔널 하우스(외국인 기숙사)를 건설할 예정이고, 내달 중순쯤 국제화기금을 모아 자금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0위권에 머물렀던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도 33위로 7단계 상승했다. 이 부문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세입 중 기부금 항목'과 함께 △교수 당 학생수 △교수 확보율 △학생 당 장학금 규모 △기숙사 수용률 △도서관구입비 △학생 당 교육비 △세입 중 납입금 비율 등 총 12개 항목으로 평가됐다. 장학금 환원율 항목은 작년 대비 93위에 비해 37위로 크게 상승했지만, 학생 당 장학금 비율은 평가기준의 변경으로 작년 대비 7위에서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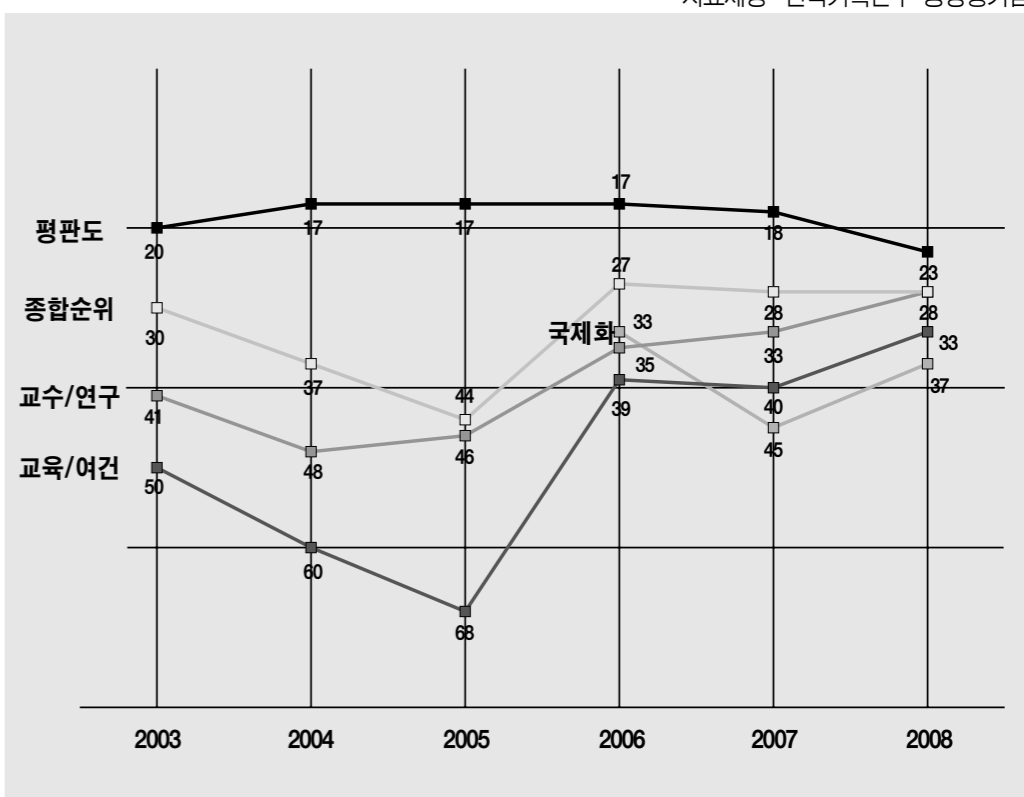
### ■ 종합순위 상위 30위

순위	대학명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2	포항공대
3	서울대
4	연세대
5	고려대
6	성균관대
7	한양대
8	서강대
9	이화여대
10	경희대
11	인하대, 한국외대
13	부산대
14	중앙대
15	아주대
16	건국대
17	경북대
27	숙명여대
28	동국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

### ■ 본교순위

구분	2007년	2008년
종합 순위	28	28
교육여건/재정	40	33
국제화	45	37
교수연구	33	28
평판/사회진출도	18	23

### ■ 최근 6년간 순위 변화



위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제외한 다른 10개의 세부항목들도 전반적으로 30위권 밖의 순위를 보였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서관구입비 부문에 투자를 더욱 늘리고 학생 당 장학금 비율 항목의 저조한 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3위에 머물렀던 교수연구 부문은 5단계 올라 28위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계열 평균 교수 당 자체 연구비 △인문사회 교수 당 국내 논문 게재 수 △과학기술 교수 당 국내 논문 게재 수 △직접재산권 등록(가중점수) 등 10개 평가항목이 있다. 여기에선 계열평균 교수 당 외부 연구비(2008년 순위 18위, 2007년 순위 8위 ▼10계단 하락)와 지적재산권 등록(2008년 순위 40위, 2007년 순위 37위 ▼3단계 하락) 평가항목을 제외한 순위 및 수치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이번 평가에서 교수 연구역량의 저조한 실적들은 교육여건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학교 교육여건 향상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자부들을 유치하고,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패널리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평판 및 사회진출도 부문은 하락세

우리대학은 △교육여건 및 재정(2008년 순위 33위, 2007년 순위 40위 ▲7계단 상승) △국제화(2008년 순위 37위, 2007년 순위 45위 ▲8계단 상승) △교수연구 부문(2008년 순위 28위, 2007년 순

위 33위 ▲5계단 상승)에서 지난해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평가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국제화 부문과 교수연구부문의 순위가 조금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졸업생의 사회진출과 학교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평판 및 사회진출도 부문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

평판 및 사회진출도 부문은 △취업률(순수취업률과 정규직취업률의 평균) △평판도(기업과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직무수행능력, 리더십, 자기개발, 발전가능성 등)) △사법·행정·외무 등 고등고시 합격자 수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합격자 수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다. 정부·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고교 교장, 교감 등의 주관적 의견을 반영한 평판도 부문에서는 소폭 하락하며 지난해 18위에서 5단계 떨어진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신장아 사건과 올해 로스를 탈락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상 외로 눈에 띄는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한 취업률 항목에 대해 학교 측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은 작년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라진 채용방식 때문에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주캠퍼스의 취업률까지 올라가 전체적인 순위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평가 결과, 맹신할 순 없다

올해로 15번째인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대학 간 경쟁과 수험생들의 대학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정량

화된 평가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가 순위 책정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학평가도 실상 외형위주의 평가방식이었고, 우리학교는 본교와 본교를 함께 평가했기 때문에 순위 책정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양적인 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중앙일보 측에 항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된 평가에서 본교(경주캠)는 △기숙사 수용률 △교수확보율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 교수 비율 △영어강좌의 비율 △취업률 등의 많은 항목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학교 측은 "소규모 대학일 경우 일정액 이상의 재정이라면 교육여건이나 지표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어있다"며 "규모가 큰 종합대학일 경우 수백억의 재정으로도 지표개선효과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 공과대 중심의 이공계 학교 혹은 외국어 특성화 대학 등이 지표상에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대학평가 결과, 향후 대책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순위를 책정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단인 조계종단에서도 "조계종 산하의 사찰을 통해 임시일반 기부부를 하며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모르는 척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일산 병원건설과 로스를 선정 준비과정에 많

은 재원이 들어간 바 있다. 이제 재정관리의 초점을 교육여건부문과 교수연구부문, 국제화부문에 맞추고, 그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선행된다면 각 부문별 평가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순위가 나올 것이라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평가에서는 총 38개의 지표 중 25개의 지표가 개선됐고, 9개의 지표가 하락했으며 2개의 지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의 지표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항목들이다. 개선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곡선을 보였지만, 하락세를 보인 항목들이 차이가 커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적인 순위변동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에 홍성조(산업시스템공학) 전략기획본부장은 "38개의 모든 지표를 단기에 향상시킬 수는 없다"며 "선택과 집중,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강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문 지표담당자들은 이번 달 안으로 이번 대학 평가 대책 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평가결과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학내 불안감과 대립을 조성하기 보다는 학교, 학생, 교수가 삼위일체가 되어 각 구성원이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나가야 현재의 침체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중서 기자  
jongseo@dongguk.edu



▲ 중국인 유학생 김효운(일본3) 군.

# 朋友。[péng you]

## “친구는 같이 손을 내미는 것”

서로가 다름을 이해할 때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동대신문 기획광고 - <동국 겸따마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기획연재 - 에코캠퍼스로의 전환 ③ 제도적 변환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에너지 사용 줄이려는 학교·학생 노력 '시급'

## 학생 교수 교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실천 필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온난화, 이상기후 등이 나타나면서 세계는 친환경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도 에코캠퍼스라고 불리는 친환경 캠퍼스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은 거대한 에너지 및 재화의 소비주체이며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에코캠퍼스 구축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연재 기획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미국 대학들의 경우에는 2007년 3월에 152개 대학총장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지만 내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외국 대학들은 대학내부 정책으로 삼고 있으나 국내 실정은 아직 그렇지 않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지금부터 대학 내부에서 시작하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학은 지식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지식인은 시대를 읽는 정신이 뛰어나야 하며 사회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와 자치의 덕목이 함께 있다. 이런 까닭에 대학은 현재 이 시대가 처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를 탐구하고 모색하며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은 캠퍼스뿐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생활하는 이 공간에 녹색을 부여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 에코캠퍼스 추진 위원회의 구성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일이 대학 생활의 전부일 것이다. 이제 기존의 단순한 취업공부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 발상이 가능한 에코캠퍼스 활동에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분위기를 마련해 가자.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학생들과 열린 토론도 하고 치열하게 활동도 하며 연구도 할 수 있는 에코캠퍼스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활동은 유연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교직원과 교수, 학생들이 서로 벽을 허물고 토론하고 현장체험도 하는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도 마련해 가며 학문연구와 실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연구들

은 대부분 교수, 교직원, 학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별로 에코캠퍼스, 녹색캠퍼스, 지속가능한 캠퍼스 등의 다양한 구호들을 앞에 놓고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학교본부만의 추진, 관심 있는 교수들의 강의에서 일부 진행, 또는 관심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이 분열되어 진행되어 온 상황이다.

###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의견수렴과 이행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대학기구 내에 에코캠퍼스 기획위원회 또는 지속가능한 동국대를 위한 에코캠퍼스 센터를 마련하여 교수, 교직원, 학생회의 에코캠퍼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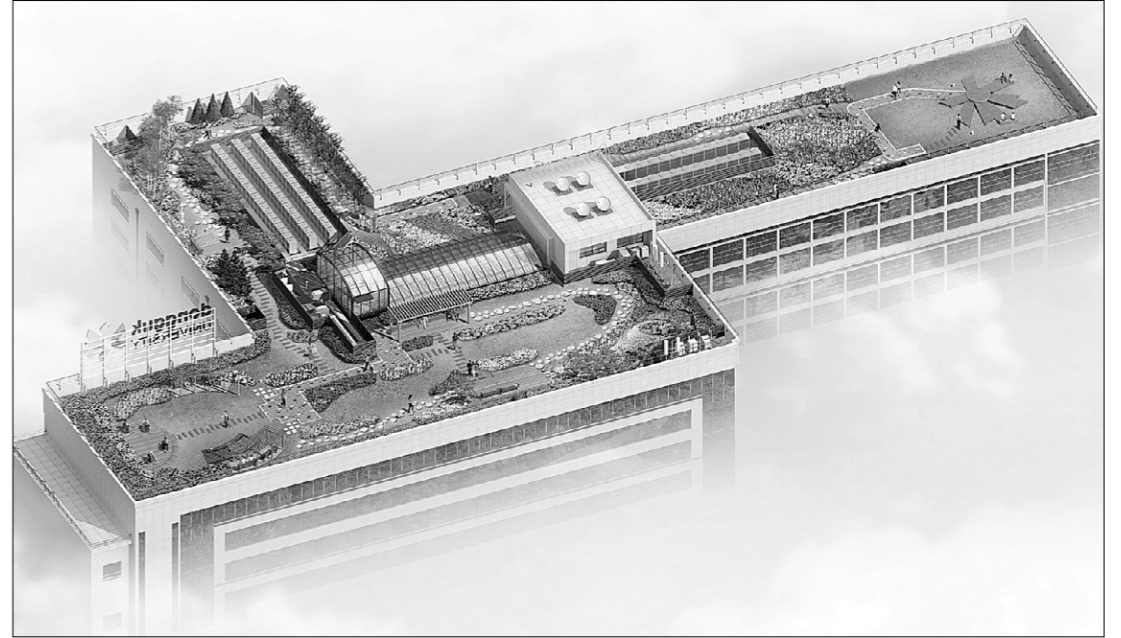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캠퍼스 내 전력과 에너지, 물, 폐기물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측정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량)는 학생회, 교수, 교직원이 참여하는 에코캠퍼스 추진 위원회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직원들은 전력, 물 사용량, 교통수요 등 학교운영에서 나타나는 배출원별로 파악해 분석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배출량을 파악한 다음 학교 차원의 우선순위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학교가 어떤 에너지원을 주로 소비하는가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실가스 에너지원과 배출량을 파악하면 절감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며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대학들의 전력 및 물 사용량은 전력을 소비하는 주체 중 손에 꼽힐 정도이다. 이에 겨울철 난방사용이나 교통신호가 상당한 대학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대학의 냉난방부문의 효율개선, 대학 내 바이오연료 사용,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원에는 물, 전력, 난방, 녹지 등이 있는데 배출절감을 위해서는 가장 도입이 쉬운 부분부터 진행해야 한다.

먼저 대학에는 컴퓨터 사용, 강의실 및 연구실의 냉난방 등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영역들이 곳곳에 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구 사용과 건물 설계, 각 건물의 적정온도 유지 등을 실천하는 기본 활동부터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가 효율적인 이동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한 대중교통과 카풀을 장려해야 한다.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을 선택하고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현재 동국대 내에선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옥상 녹화 사업을 진행 하고



▲ 사진은 옥상 녹화 후에 예상되는 만해관 옥상 조감도이다. 친환경적인 옥상 정원은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건물의 냉·난방의 효율성도 높여준다.

있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가져온다. 여름에는 단열 효과를 높여 냉방비를 줄일 수 있고 겨울에는 보온 효과를 높여 난방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에코캠퍼스 교육 과정 채택 필요

에코캠퍼스로의 전환은 구성원들의 운동, 에너지 사용 감소 노력뿐만 아니라 교과목에서도 관련 과정을 채택해 학생들에게 교육 쪽을 넓히는 쪽으로도 나아가야 한다.

이런 교육들이 학생회 및 동아리 학생 자치 활동으로 발전되어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자율적 활동으로 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에코캠퍼스 기구 마련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설정해 지시하면 쉽지만 위로부터의 추진만으로는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전제조건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아리 및 학생회는 에코캠퍼스에 대한 활동을 해 보거나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교수들의 전공분야 및 연구 분야에 이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지, 학교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참여의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다. 에코캠퍼스 활동은 즐거운 상상과 유연한 태도, 그리고 개방적인 사고로 3주체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토크콘서트, 문화행사 등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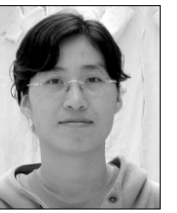
### 실천이 중요한 제도적 변환

에코캠퍼스 활동과 비슷하게 많은 사회적 틀은 의제21(Agenda21)이다. 92년 리우회의에 각 정부, 민간단체, 기업의 참여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

해 마련한 실천항목으로 이 21가지 항목은 파트너십을 활용해 풀어간다. 이 활동은 각 대학의 에코 캠퍼스 활동에서 세우는 목표와 담아내는 실천내용들과 비슷하다. 정책 설정부터 풀뿌리 실천 활동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 에코캠퍼스 활동은 특히 동국대의 경우 붓다의 참 뜻을 널리 퍼뜨리는 데 매우 유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개인의 실천을 중시했던 정토회의 빈 그릇 운동이 계속되는 것처럼 에코 캠퍼스 활동에 진정성이 담긴다면 타 대학으로 퍼져가는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에코캠퍼스 활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천이다. 다양한 영역과 모임에서 에코캠퍼스 행동을 준비해 가자. 대학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대학인 환경포럼'도 개최하고, 캠퍼스의 물, 전력소비, 교통, 생태계, 환경상품 구매 및 소비 등 캠퍼스 모니터링활동을 진행하는 모임도 만들고, 수업의 일환으로도 개설해 자기 전공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좀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 방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진행해 보자. 에코캠퍼스 활동이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참여자가 생산소비를 함께 해 가는 협동활동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지구의 빛이 되도록 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자.

우리는 대학이 어떤 곳으로 명명돼야 할지 몇 번 언급해 보긴 했지만 이 시대의 대학을 어떻게 만들 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코캠퍼스, 실천하는 대학인을 주제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김지연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 운영위원

### 글 쓰는 순서

1. 에코캠퍼스는 왜 중요한가
2. 해외 대학들의 상황
3. 제도적 변환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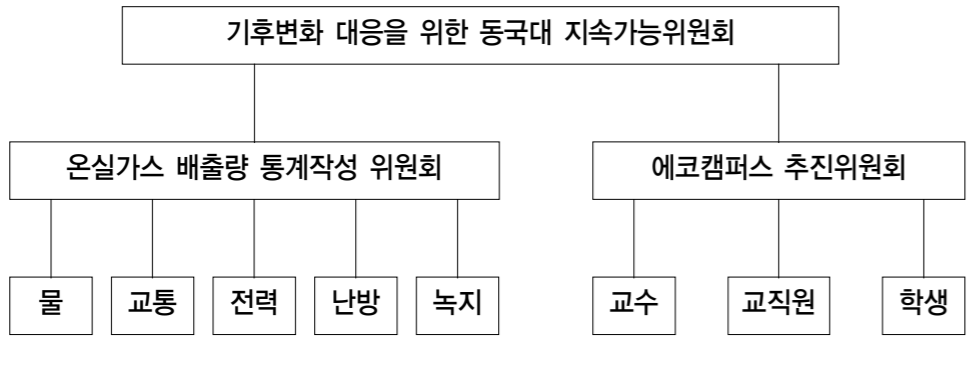
### 기후변화와 대학

2008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작되는 해이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36개 선진국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감축국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3년에는 에너지사용 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의무감축국들은 우선 2012년까지 19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서 225.9백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거기에 5.2%를 더 줄여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전반이 저에너지 체제로 체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를 이끄는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1990년 탈로아르(Talloires) 선언에 가입한 후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대학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자기실현 과제를 채택하는 에코캠퍼스 활동을 진행해 왔다.

### 온실가스 절감



▲ 에코캠퍼스를 위한 위원회 구성도

###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산사업

## 2008학년도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회차	일자	장소	인원	참가비	제출서류
15기	10.10(금)~10.12(일)	청평포리조트	50명	1만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 프로그램 세부내역

요일	시간	교육명
(금)	18:00 ~ 19:30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진단검사 (MBTI성격검사) / 회랑 직무별 조 편성
	08:00 ~ 11:00	집합, 교육장 이동
(토)	11:00 ~ 12:00	팀빌딩 (ICE BREAKING)
	12:00 ~ 13:00	점심식사 및 Break time
	13:00 ~ 15:00	21c 인제상
	15:00 ~ 18:00	취업 동향 및 JOB Search
	18:00 ~ 19:00	저녁식사 및 Break time
(일)	19:00 ~ 24:00	그랜드캐년 어드벤처
	24:00 ~	취침
	07:00 ~ 09:00	기상 및 아침식사
	09:00 ~ 12:00	행동유형분석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피
	12:00 ~ 13:00	점심식사 및 Break time
	13:00 ~ 15:00	지피지기 백전백승 '인사그것을 알려주미'
	15:00 ~ 17:00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17:00 ~ 18:00	수료식	
18:00 ~	해산	

모집대상 : 본교 여학생 (휴학생/졸업생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08. 9. 23(화) ~ 10. 8(수)

접수방법 : 학림관 6층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방문 접수

선착순 50명 (이력서/자기소개서는 이메일로 제출)

참가비 : 1만원

문의 : 02)2260-8855 윤주영(이메일주소 : alisa@dongguk.edu)

## 학생경력개발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제2회 클린 동국 캠페인 실시

1. 기간 : 10월 9일(목) ~ 10(금)  
위 기간 중 일체의 불법 게시물을 제거할 예정이니 게시물을 부착 시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라 학생서비스팀의 확인을 반드시 필수하시기 바랍니다.
2. 내용  
가. 불법 게시물을 제거(현수막 포함)  
나. 동아리방 환경미화 실시
3. 주최 : 총학생회(비), 동아리연합회, 생활학생위원회
4. 협조 : 총괄지원팀, 학생서비스팀

## 2008년 해외탐방장학 사진전시회에 초대합니다

하계방학 기간 동안 현장학습을 통한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탐방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10.13(월)~10.17(금) 9:00~17:00

장소 : 본관앞 팔정도

대상 : 동국해외탐방장학,

북미주총동문회초청해외연수장학,

총무역사탐방장학,

세계대학을 가다

##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

## 중간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200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간 (10.13~10.24일)중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공강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 1.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물	구분	개관시간 (토, 일요일 포함)
중앙도서관	자료실	08:00-22:00
	별관 열람실	24시간
법학전문도서관 (민해관)	법학 자료실	08:00-22:00
	열람실	24시간

※ 단, 멀티미디어실(중앙도서관, 법학전문도서관) 개관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  
※ 과석 사석화, 자리 잡아 주기 등 비양심적인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장흥문화체육센터 독서실 이용

- 가. 이용 시간  
(1) 월요일 ~ 금요일 : 06:00~22:00  
(2) 토요일, 일요일 : 09:00~18:00  
나. 이용 좌석 : 100석(남, 여 각 50석)  
다. 이용 대상 : 재학생 한정하여 선착순(학생증 지참)  
라. 비용 : 무료(도서관에서 부담)  
마. 위치 : 체육관과 엠버서더 호텔 뒤편 사이

### 3. 강의실 대관 및 이용안내

- 가. 목적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 일부를 도서관 명의로 대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하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나. 강의실 대관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을 도서관 명의로 대관  
(1) 강의실 유형 : 전일(07:00~22:00) / 오전(07:00~13:00)  
(2) 대관된 강의실 :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다. 강의실 조회 시스템 안내 :  
(1) 동국대학교 시설대관 시스템에서 가능  
(2) 학교 홈페이지 → 학사/생활 → 학사센터 → 시설대관신청 → 빈강의실 찾기 → 조회(건물, 강의실별)  
(3) 학교 및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4) 강의실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앙도서관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자료 조사 활동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만 근대 한국 민속학을 둘러싼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복잡다기한 관계를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식민주의에 복무한 일본인의 조선민속학 대 문화민족주의에 기초한 한국인의 조선민속학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실증적 검토를 통해 식민지 정책의 실천적 맥락에서 조선민속학의 정치성과 사상성의 변화를 고찰한 남근우의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는 흥미롭다.

저자는 송석하의 ‘실천적 문화민족주의’와 손진태의 ‘민족문화론’을 각각 제국 일본의 식민주의 및 만산사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재고하는 한편, 식민주의의 조선민속학의 성립 과정과 식민지 정책 사이의 연관성 및 조선민속학회의 창립 과정과 활동 내용 등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을 통해 조선민속학의 정치성과 사상성의 변화를 명료히 보여준다.

이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민속학의 개념, 인식, 범주 등의 기원을 되묻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식민지 조선의 학자 발생의 한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오태영 동국대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남근우 저음/2008/신국판/272쪽/20,000원

일반적으로 ‘민속학’은 그 사전적 의미가 말해주듯, 민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 따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라틴계 나라들의 포크로어(folk-lore), 독일을 중심으로 한 튜턴 계 나라들의 폴크스쿰데(Volkskunde)

,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에서의 민속학(民俗學) 등 각각의 나라와 문화권에 따라 그 연구 대상과 방법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민속학이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인식은 이 사전적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민속학이 식민지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제국 일본 학자(學知)의 자장 속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식민지 ‘조선민속학’의 발생과 전개 과정 속에 그와 관련된 제국 일본의 식민지 정책, 일본인 학자들의 민속학적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권보드래 저음/2008/신국판/490쪽/25,000원

전례없이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도 1910년대는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그야말로 흔치않은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개 근대개봉기의 역동적인 변화와 자강에의 에너지가 외압에 의해 소멸된 이후, 혹은 식민지라는 암울한 단계로 이제 막 진입했을 뿐 3·1운동에 의한 대대적인 민족적 각성이 미처 분출되기 이전의 시기라면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1910년의 한일합방과 1919년의 3·1운동의 사이로서만 규정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1910년대는 독자적인 시대적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한, 오로지 한일합방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3·1운동의 전사(前史)로서 다루어져 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신소설과 변안소설의 전성기도, 이광수의 ‘무정’이 저술된 것도, ‘소년’과 ‘청춘’ 같은 잡지가 널리 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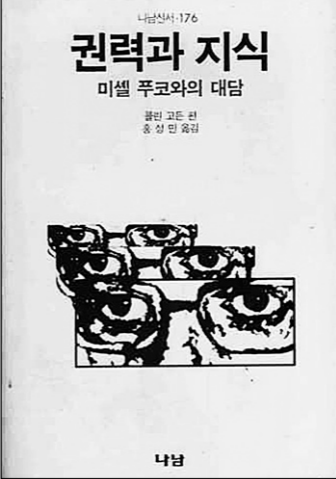
혔던 것도, 신연극이 도입된 것도 모두 1910년대의 일이다. 그 문화적 융성의 배경에 식민지 초기의 유례없는 활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권보드래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는 바로 그 활력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저서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것은 1910년대 ‘매일신보’에 게재된 방대한 분량의 기사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불안하고 평온한 일상’, ‘사회와 개인의 감각’, ‘불만, 소요, 저항’이라는 3가지 키워드에 따라 분류하고 선별하여 자료집으로 묶고 주제별로 해설을 덧붙인 인문학 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갈 만한 당대의 사건, 사고의 사례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 이른바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감각들이 과연 어떤 시대로부터 비롯되어 왔는지 그 생생한 연원을 추적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이 책은 우리가 압축의 이면으로 덮여왔던 1910년대의 삶이 기실 근대 문화와 문화의 생성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대단히 활력 넘치는 것이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흔치않은 저서에 해당한다.

조형래 문화평론가, 동국대 강사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김호성 교수의 비판적 책 읽기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지음: 콜린 고든 옮김:홍성민 펴낸곳:나남출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책을 읽도록 명령한다. 애시당초 먼저 읽은 책과 뒤에 읽어야 할 책 사이에 공통부분이 있고, 통로가 뚫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셔널리 호손의 ‘주홍글자’가 내게 말하고 말한 것은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였다.

원호스님이나 헤스터 프린이 공히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기존의 권력을 해체하기 위하여 저항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나는 푸코를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권력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했던 푸코 말이다. 순간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내게 푸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불살생의 의미인 아힘사/ahimsa를 탈권력의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나, 말도 안 되는 듯한 ‘홀로콜라’라는 말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이나 다 푸코의 영향이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푸코를 제대로 읽어본 일이 없었음을 말이다. 읽지도 않았으면서 읽은 책 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먼지와 벗고 있는 외로운 책들 속에서 나는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콜린 고든, 홍성민 옮김, 나남출판, 1997)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책 역시 오래 전에 읽은 흔적이 있다. 근대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다. “권력은 행사되는 영향력이라고 개념화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 퍼져있는 세력관계라는 것입니다.”(122쪽)

푸코가 서있는 입각지(立脚地)이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에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말한 니체(F.W. Nietzsche, 1844~1900)를 이어받아서, 푸코는 권력은 어디에나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웅변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권력이란 국가기구나

푸코, 권력에 대한 경계를 통해 권력의 욕망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불교적 시각을 제시

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기구나 바깥에 존재하는 보다 섬세한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혁명을 치르든 하더라도 사회를 지탱해 가는 권력의 성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89~90쪽)

이러한 푸코를 읽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영화감독 김기영(金綺泳, 1922~1998)은 ‘파계’에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권력에의 욕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참조,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한다’, 정우서적, 110~117쪽. 참조) 그러나, 정작 불교는 권력욕에 대한 경계를 그다지 말하지 않는다! 가장 끈질긴 다섯가지 욕망을 말할 때에도 권력욕은 거명하지 않는다. 겨우 명여욕만 말한다. 바르트(R.Barthes, 1915~1980)가 말한 것처럼, “명여란 일반적으로 권력의 찌꺼기일 뿐이다.”(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18쪽)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여가 아니라 권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푸코를 데리고 와서 불교 안에서 다시 권력을 경제/경고하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면 된다. 그렇게 불교를 완성시켜 가면 되지 않겠는가.

마침 붓다는 말로써 경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 자체가 권력의 해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붓다의 출가(出家)’라는 사건이 지니는 포스트모던적 의미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는 하고 싶고, 그것이 언제 시간 내서 본격적으로 푸코공부를 해보고 싶은 참된 이유이다.

권력의 포기, 내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하여 무력(無力)해 지지 않는다면 참된 학문도 참된 수행도 불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권력의 욕망에서 헤어나 무력해 질 수 있을 것인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전자출판/콘텐츠출판 정기학술 발표회

- 주 최: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한국전자출판학회, 한국콘텐츠출판학회
일 시: 2008년 10월 29일 오후 5시
장 소: 동국대 문화관 제3세미나실
대주제: 융합형 콘텐츠로서의 출판
인사발: 강성운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이기성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이경정 한국콘텐츠출판학회 회장
주제발표 1 콘텐츠 출판용 한글디자인 발표자: 이기성(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주제발표 2 콘텐츠 개발과 인디자인 발표자: 김경수(한국사이버출판대학 교수)
주제발표 3 융합형 콘텐츠 출판과 2D코드 발표자: 지용구(덕존C&T 대표)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학과

가을에 읽을만한 대학생 교양서적 소개



신라의 발견

다고 자부하는 ‘신라’는 이미 ‘신라’가 아니다. 최근 출간된 ‘신라의 발견’은 현재 우리가 고수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민족문화의 통념들에 대해 흥미로운 재해석을 보여준다. 민족문화의 성지(聖地)인 ‘신라’는 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고 고명되어야 했을까, 식민지기 소설들이 끊임없이 ‘신라’를 이야기하고 재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이후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기에 왜 ‘화랑(花郎)’의 이미지는 각광을 받았던 것일까. 이 책에 수록된 10편의 논문들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에 답변하는 사이에, 현재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공고하게 자리잡은 ‘신라’라는 관념, 이미지가 허구적 상상이나 역사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준다. 그것은 어쩌면 한민족을 불멸의 민족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지평을 풍요롭게 열어놓을 것이다. ‘신라의 발견’은 문화적 상징, 설화, 교훈, 교과서, 시가, 심지어는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근대 한국문화의 각종 ‘신라’ 표상에 내재된 어떤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지적 호기심을 지닌 독자라면 충분히 일독할 만한 가치를 지닌 책이다.

이철호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고귀한 야만

본교 사학과 양홍석 교수는 이 저서에서 19세기 미국서부를 활극형태로 문화상품화 한 버팔로 빌 코디(Buffalo Bill Cody)의 와일드 웨스트 쇼(Wild West Show)의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저서의 1부는 주로 버팔로 빌 코디의 성장과정과 와일드 웨스트 쇼가 탄생하게 된 당대의 미국 문화를 소개하고, 2부는 이 활극이 어떻게 유럽에서 공연되고 그림으로써 유럽인들로 하여금 미국의 서부에 대한 시선을 편향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는지를 소개한다.

활극의 내용은 주로 서부에 사는 인디언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포악하며 도대체 문명인으로 개조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활극 속의 인디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정착한 백인 가족을 불살하거나 아름다운 백인 여성을 납치하고 백인들의 마차를 습격하

이렇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19세기 미국 동부와 유럽에 선사한 이 활극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요지이다. 한 번도 서부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활극의 내용을 단순한 재미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 서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함으로써, 사실적인 서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상의 지리학’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이 활극으로 말미암아 백인기병대는 인디언을 제거하는 명분을 얻음으로써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인디언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 활극은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문명화시킨다는 교조 하에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을 드러내 놓고 자행하도록 도와준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다.

노현균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0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 문화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10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영입강사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시: 2008. 10. 13(월) 오후3시 ~5시
3. 장 소: 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지하2층) 세미나실
4. 진 행: 교양교육원 권보드래 교수
5. 선정영화: 모던 보이 / 정지우 감독 2008년작
6. 관련도서: 망하거나 죽지않고 살 수 있었니 / 이지형 저 2000년.
1930년대 일제식민지 경성, 그 모던타임즈의 막힌 화로 속에서 봉봉거리는 남녀의 실존을 한바탕 활극으로, 한 편의 한여름밤의 꿈으로, 가볍게 우스꽝스럽게, 그러나 현대가 부여하는 권태와 우수와 함께 포착하는 이 작품은 짜집아 ‘근대’라고 불리는 모든 기제들을 비롯하여 시금-여가의 문제의식을 발발하게 되짚어 볼 수 있다.

- 7. 정 원: 12명
8.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야 하며, 영화는 개별관람 후 입장권을 토론회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10. 기타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교환을 시대에 성공어학연수 지름길 <필리핀 맞춤형>

제17회 저자와의 대화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저자의 사상과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의 폭을 넓혀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책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1. 행사명: 제17회 <저자와의 대화>
2. 일 시: 2008. 10. 29(수) 오후4:00~6:00
3. 장 소: 중앙도서관 A/V실(2층)
4. 강연자: <성공어학연수 가이드 필리핀 맞춤형>의 저자 박미경
『성공어학연수 가이드 필리핀 맞춤형』의 저자 박미경은 완벽한 영어정복을 위해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교환을 시대에 경비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고민이 많은 독자들을 위해 필리핀에서 성공적인 연수를 하고 돌아오는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알짜배기 노하우를 강연한다.
5. 내 용: 강연 및 필리핀 어학연수 소개
6. 인 원: 80명
7. 참가신청: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예만 현장접수 합니다.
8. 주 최: 중앙도서관, 아이생각·디지털북스
9. 후 원: MLI어학연수원
10. 기타 \* <작가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과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책을 나눠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달 하나천강에

정상을 향한 첫 걸음

7년 전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농심에 입사했던 이 모군이 몇 달 전 연구실로 찾아 왔습니다. 창립 기념일이라 회사에 쉬는 날이라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러 학교에 왔다가 인사차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마침 제가 급하게 보낼 이메일 몇 통이 있어 잠시만 기다려 달라 했더니, 머리를 굴리며 교수님 책꽂이에 있는 책들 좀 둘러보아도 되겠냐기에 그리하라 고개를 끄덕이곤 이메일을 쓰면서 결혼으로 슬쩍 뭘 하나 지켜 보았더니, 마치 요즘 교수님계신 어떤 공부를 하시나 감시라도 하러 온 수사관처럼 이 책 저 책을 부산하 뒤적이더군요.

펼쳐 보고 싶는데, 큰 식품 회사라면 음식 제조와 포장 일이 많을 터이니 자동화 관련해서 자신이 연구할 소재도 많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리 결정했다는 답이었습니다.

입사 이후 첫 스승의 날 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포부 실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물었더니 일단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께 귀여움을 받게 되었으니 1차 목표는 달성한 셈이라 하더군요. 자동화 기기 연구와 아주머니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개를 가우뿔 거렸습니다.

현장에서 배움

기존 상품 제조 및 포장 관련 예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다면 정말 쓸모 있는 자동화 기기 연구 개발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맡고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친해져야 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농심에 취업한 제자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전자공학이 주 사업분야는 아닌 농심으로 취업 결정을 했을 때 일면 특이해 보여서 이 군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동 제어 분야에서 꿈을

아주머니를 뵈 때는 상사께 인사드릴 때보다도 더욱 깎듯이 인사드리고, 짬 날 때마다 공장으로 달려가 짐부름도 열심히 해 드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이 군으로부터 농심 마크가 찍힌 상장을 스캔 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 날라 왔습니다. 회사에 크게 기여한 사원에 대한 포상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가의 외산 자동차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기에 자신이 한 번 자체 개발을 해 보겠노라 용기를 내어 의견을 냈더니 크지는 않지만 얼마간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어, 맨 바닥에서부터 몇 년간을 고생한 끝에 결국은 외산 기기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제법 근사한 수준의 국산화 기기 개발에 성공을 해 냈던 것이었습니다.

기대되는 제자

몇 달 전 그 날은 자신이 그동안 연구

개발하였던 기기의 첨단화를 위해 계속 고심하던 중, 기본적인 이론을 되짚어 볼 필요를 계속 느껴 오다가, 마침 휴일을 얻어 맘껏 책을 보러 학교 도서관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전자공학 분야가 워낙 광범위 한 지라 분야가 많이 다른 저는 별 도움을 줄 게 없어 많이 미안했습니다.

재학 시절에는 운동을 좋아해서 육체 미 선수 못지 않은 근육남이었는데, 그 날은 흰 머리로 간혹 눈에 띄고, 근육은 커녕 오히려 배가 좀 나온 듯 하여 인쓰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진정한 버팀목은 이러한 친구들이 아닌가 싶어 너무도 장하고 든든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 졌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면 이 군을 아끼시는 아주머니께서 챙겨주셨을 것 뻔한 라면과 건강 한 웃음을 잔뜩 쌓 가지고 송년 소주 한 잔 하러 찾아 올 이 군이 기다려집니다. 과연 이 군이 그 알미운 고가 외산 기기를 밀어 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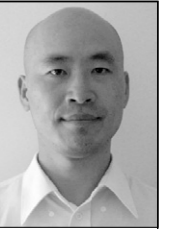


홍유표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부교수

동문칼럼

종교의 미래

일미스님 동문·불교 96종 애리조나대학 동양종교학 교수



서양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다는 미국에서도 종교의 입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종교를 갖지 않거나 혹은 특정 종교를 믿으면서도 교리의 모순이나 교단 및 종교인의 부조리에 염증을 느낀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성과 신비로움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한 종교 역사 수업 시간에 불교와 정치관계에 대해 강의할 때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교의 정치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모든 종교가 세속의 사회 현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흥미롭게도 한 학생의 답변이 눈에 띄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는 스님들의 수행을 단순히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 동조하는 학생은 소수였다. 비판적인 대다수의 의견에 묻히고 말았다.

이 학생이 나를 놀라게 했던 점은 설득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불교의 순수한 종교성을 강조한 사실이다. 물론 비교적 개방적인 대학 강당에서 생긴 에피소드이지만 미국종교의 실상을 반영한다. 창조신과 인간의 원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세계관과 윤리관을 점차 힘을 잃어가고 교회를 떠난 개개인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삶의 추구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변화를 개인적

수행 그리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적 사고로 전환되어가고 있다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다. 명상수행과 공생공존의 연기법을 바탕으로 한 불교적 삶이 미국인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여러 형태의 명상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심리 상담에서도 불교적 사고와 인생관을 적용하고 있다는 예를 자주 든다.

그렇다고 미국이 불교적인 사고로 전환해 가는 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종교가 비판 아니면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불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착된 불교의 승단, 교리 그리고 의식을 미국에선 보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불교명상이나 교리가 불교라는 이름을 잃은 지 오래다. 불교를 수행하는 많은 이들이 불교라는 타이틀에 불편해 한다. 그래서 미국에는 수행하는 사람은 적지만 불자라고 하는 이들은 드물다.

사실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사회에서 구속적인 종교보다는 각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강조하는 탈종교적 삶이 당연한 흐름일지 모른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을 뒤는 명상의 필요성과 세상을 불가분, 연기법적으로 보는 사고가 자연적으로 생기는지도 모른다. 외부에서 보는 이는 불교적 사고로의 전환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불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탈종교화, 탈불교화하려는 미국인들에게 불교적 사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보리수

만용을 경계하자

부처님의 재가신도 가운데 수닷따라는 이가 있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수닷따를 말하자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역만장자쯤 되는 사람이다.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을 상대하여 성공을 거둔 무역상이 되자면 각 나라의 제도나 관행을 꿰뚫어 알아야 하고 각 나라의 상인들과 신용을 쌓아야 할 것이니 국제적 식견을 높게 갖춘 지식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가 처음 부처님을 만난 것도 자국에서가 아니라 무역 거래 차 탄 나라에 갔을 때였으니 그는 단순히 돈 많은 장사꾼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부처님을 자기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 부처님 당시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춘 기원정사를 건립하여 부처님께 헌납했다는 것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에나 지금이나 꽤나 어렵게 번 재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도 엄청난 많은 재물을 회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이니 말이다.

그가 부처님에게 헌납한 기원정사의 크기가 3만 7천여 평이었다고 하니 그가 정사를 건립하는데 들었던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되었을까는 상상으로 헤아려볼 뿐이다.

당대 최고의 재력가이자 유명인이 부처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나섰으니 외도들의 심기가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아침 수닷따를 만난 외도들이 "고따마가 가르치는 견해가 어떤 것인지 말해보라"고 자못 도전적으로 물어왔다. 그때 수닷따가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내 감히 어 떻다고 말할 수 있겠소. 부처님의 견해는 내가 미칠 바가 아니요. 그 분의 가르침은 내 분수 밖에 있소"라고 말했다.

수닷따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했는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서 나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경전이 전하는 이야기의 전개과정이나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 식견으로 보아 몰라서라기보다 겸손함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기독교계에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어떤 목사는 석가모니는 불교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는데 만용(蠻勇)에 가까운 그 말에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자는 물론이요 혹 타종교를 가진 이들이라 할지라도 동국인은 그런 만용을 자랑삼지 않기를 바란다.

2008인문주간 2008.10.6▶11

사람과 생활

인문학으로 바라보기

- ◆ 문화체험 및 답사 Humanism에서의 '사람'과 '삶' - 건축, 문학, 민속 기행
◆ 강연 및 토론 '삶' 그 시공(時空)을 넘어 - 자신으로의 여행
◆ 공모 및 전시 '다문화·가족·개인' - 공생(共生)을 위한 가치 창출

2008.10.6(월) 13:00 남산건축(콘크리트 건축물) 기행 동국대학교(본관, 명진관) / (구)동북고등학교 / 장충체육관 / 수표교(장충단공원) / 자유센터 / 타워호텔 / 국립극장 / 남산타워 / 남산시립도서관 / 김소월 시비(詩碑) / (구)어린이회관

2008.10.7(화) 14:00 "문학에서의 사람과 삶(역사의 무게와 삶의 무게) - 낭만주의 문학과 생활의 발견" 강연자: 허천택 동국대 명예교수 시간: 14:00~17:00 장소: 다량관 세미나실

2008.10.8(수) 13:00 명동문학기행 동국대학교 / 한국현대문학관 / 미당 서정주 기념실 / 진고개 / 동방살롱, 은성다방 등 / 명보극장 / 스퀘어 극장 / 신세계백화점

2008.10.9(목) 14:00 "역사·철학 속의 사람과 삶 (영웅의 역사에서 생활의 역사로) - '사람'의 망각과 재발견" 강연자: 김항배 동국대 명예교수 시간: 14:00~17:00 장소: 다량관 세미나실

2008.10.10(금) 13:00 서울민속기행 동국대학교 / 사직공원 / 단군사당 / 민속박물관(아외전시장) / 경복궁(고궁박물관) / 북촌 / 봉원사 주변 / 국사당 / 와룡모 / 권양모

2008.10.11(토) 13:00 "다문화시대의 사람과 삶 - 이주의 시대, 삶의 변화" 강연자: 미누목연(이주노동운동가) 시간: 13:00~15:00 장소: 다량관 세미나실

11월 1일~6일 (사진 전시회) '다문화와 삶,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2008.10.6(월)~10.11(토) 10:00~18:00 장소: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

독자사진첩



가을의 우체통 인터넷, 핸드폰 속 수천, 수만의 활자를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떨림. 그런데 왜 우체통은 열어도 지 않아도 설레어오는 걸까요. 배종성(사과대 신방 2)

금주의 식단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Menu. Rows include 10/6, 10/7, 10/8, 10/9, 10/10 with specific menu items like '서울민속기행' and '다문화시대의 사람과 삶'.

상록원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Menu. Rows include 10/6, 10/7, 10/8, 10/9, 10/10 with menu items like '삼산전구이' and '다문화와 삶'.

아리수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Menu. Rows include 10/6, 10/7, 10/8, 10/9, 10/10 with menu items like '돈육김치찌개' and '쇠고기해장국'.

논단

미국 금융위기를 통해 본 한국 경제의 그림자

경제독립성 확보위해 대외의존도 줄이고 내수시장 활성화 시켜야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은 행이 페니메와 프레디맥에서 매입했던 370억달러어치의 채권은 선순위채권으로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으로 두 기관이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손실을 입지 않았다. 국민연금에서 미국 부실 금융회사에 투자하여 입은 손실은 1200억원으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미국경제의 막강한 영향력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에 유입됐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단기외채, 주식 등)이 미 금융위기로 급격히 빠져나감으로써 환율·주가·금리 등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8월중 자본수지가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와 외국인의 증시 순 매도 영향으로 56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했고, 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00원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또한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억제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 8월중 대출 평균금리는 7.31%로 전담보대출 금리는 10%를 넘어섰다. 9월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자금사정이 심각하다고 답한 업체는 68.8%에 달한다. 미국발 금융불안은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산업생산은 지난해 8월보다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월과 비교해 2.2%가 줄었다. 내수용 출하도 지난해 8월보다 1.3%가 줄었다. 9월에 수출은 전년 동기비 28.7% 증가한 반면 수입은 46% 증가하면서 1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9월 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142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지난 8월 16~45%에서 9월 2~7%대로 떨어졌다. 경기침체 속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생산·소비·수출 모두 비상이 걸린 셈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항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각각 7, 9개월째 하락했다.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위기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한국의 실물경제의 침체도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경제의 강한 영향을 벗어나서 한국경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은 무엇인가.

금융위기 억제 노력 필요

우선 금융위기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키코문제 해결은 용자를 확대해주는

간접방식이 아니라 키코상품을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린 은행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과거에 LTCM 사태가 났을 때 정부가 조정역할을 하여 LTCM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서 큰 이익을 본 금융기관들이 구제금융을 모아서 공급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토빈세를 도입하여 외국자본의 잦은 유출입을 억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44%로 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9% 수준으로 내려왔다. 외국인들은 국내증시에서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증시의 변동성을 높였다. 외국인 점유 비중의 상한선을 예컨대 30%로 정하고 20%로 점차로 낮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외의존도 감소 필요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수출·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2분기 117.7%로 뛰었다. 올 2분기 수출 의존도는 58.9%, 수입 의존도는 58.8%로 지난해 2분기의 각각 46.9%와 46.2%에 비해 12.0% 포인트와 12.6% 포인트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2002년만 해도 71.6%에 불과했으나 2004년 86.2%, 2007년 94.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40.6%



장상환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

로 우리나라(94.2%)의 절반이 채 안 됐다. 일본은 더 낮아서 35.6%(2006년)였다. 이렇게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에 아주 취약한 것이다. 대외의존도를 우선 2002년 수준인 70%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

내수 시장 확대 필요

경제침체를 완화시키려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2분기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율은 48.3%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위축된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완화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투자도 증가시켜야 하지만 경기침체 하에서는 어렵다. 법인세를 인하여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경기가 침체에 빠져 투자환경이 나쁘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재정지출 확대가 유력한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은 이미 과잉 건설된 부분도 없지 않다. 보건 의료, 교육, 주거, 빈민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수를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는 재정적자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중부세 인하 등 감세정책은 소비 진작효과도 투자 촉진효과도 가져오기 어렵고 오히려 경제침체를 심화시킬 뿐이다.

메아리

망양보외(亡羊補牢)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 장신이라는 대신이 있었다. 장신은 양왕에게 사치를 일삼는 신하를 멀리하고, 왕 또한 사치한 생활을 그만두고 국사에 전념할 것을 충언했다. 그러나 오히려 왕은 장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을 듣지 않았다. 5개월 뒤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해 양왕은 성양으로 망명하게 됐다. 양왕은 그제서야 장신을 불러 "지금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겠으나 그대도 이제 과인이 어찌해야 좋을지 알려줄 수 없겠소"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신은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見兔而顧犬 未為晚也 亡羊而補牢 未為遲也)"고 말했다. 여기서 비롯된 망양보외(亡羊補牢)

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다. 본래 의미는 이미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실패 또는 실수를 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말이다. ▲멜라민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중국 완루유업이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용 분유를 유통했고 이를 먹은 중국 어린이 4명이 숨지면서 멜라민 공포는 세계로 확산됐다. 완루유업 분유에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우유를 물로 희석 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게 측정되도록 질소성분이 많은 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용 분유에서는 아직까지 멜라민 성분이 검출 되지 않았지만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과자제품이 482개로 드러났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식탁을 잠식한 외국농산물의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원재료의 비율 중 80%가 외국산이라고 한다. 우리의 식탁 중 4/5는 외국산 식품이 채우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이들에게 맡겨진 식탁은 가격이 싸 보일지 몰라도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식량이 세계화 됨에 따라 다른 나라의 시장을 점유하기도 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면서 식량은 점차 무기화 되고 있다.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지금의 OPEC(석유수출국기구)처럼 식량수출국기구가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식탁 또한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됐다. 이미 여러 차례 한국사회는 먹을거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식량을 그저 사고파는 제품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는 듯하다. 식량의 무기화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금은 기침을 하고 있지만 얼마후엔 각혈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한국사회는 망양보외의 본래 뜻을 곱씹어 봐야 한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때다.

사설

재단, 종단과의 협력

종교일보에서 주관하는 올해 대학종합평가 순위가 발표되었다. 금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1년 동안의 주요한 교육 통계를 분석하여 전국 단위로 서열화 한 것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8위를 기록했다. 학내 구성원들과 많은 동문들은 30위 가까이 추락해 가고 있는 학교의 위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오영교 총장 취임 이래 첫 성적표여서 더 그런지도 모른다. 물론 학교의 경쟁력은 한 두 해 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지표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순위의 상승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워만 하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총장 취임 첫 해의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현 상황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자기 진단이다. 그러므로 현금의 당면과제는 이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질타한다거나 네 탓 공방을 하는 대신에 학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것의 구체적 실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믿음과 확인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교육재정의 확대가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거의 모든 지표들이 10위권은커녕 20위권 내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다른 대학이 부지런히 투자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뒤쳐졌다는 뜻이다. 확대해보면 지표 하락의 근본 원인은 부족한 교육재정과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명실상부한 불교 종립대학이다. 그러나 불교종단에서 세운 대학이 30위 안에 겨우 하나인 반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무려 8개에 이르고 있는 게 눈 앞의 현실이다. 우리 불교계가 인재를 배출하는 데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징표로 읽어 마땅하다. 종교계는 스스로 재화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신자나 신도들로부터 믿음의 값을 받는 곳이다. 오늘 우리 불교계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교리와 의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방법론적 각성의 부재 문제 때문이다. 존경받는 스님, 기부하고 싶은 사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신도가 많아질수록 재정이 커지며, 이런 바탕 위에서 인재를 길러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 키워나가고, 이들이 다시 교계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세우는 일이 정공법이다. 그러나 학교와 재단과 종단은 서로 협력하여 시스템상의 선순환 구조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대학의 비전과 한국불교의 미래가 있다.

만평

정명근 gmg@naver.com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정동훈

2008학년도 2학기 제1차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08학년도 2학기 제1차 강의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08. 10. 1(수) 10시~ 10. 12(일) 24시까지
2. 평가문항: 세부문항은 별첨 '2008학년도 2학기 제1차 강의평가 설문문항' 참조.
3. 학생참여방법: 홈페이지(서울캠퍼스) - uDrims - 로그인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강의평가관리 - 강의평가등록
4. 기타사항: 가. 교내·외 장학학생 선발시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나. 모든 해외연수 장학 선발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다. 미참여자는 교내 장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라. 강의평가는 학사행정 및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강의평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비군 보충훈련 소집공고
1. 교육 대상(대학 예비군에 편성된 자) 가. 전반기 훈련 미 참석자와 2학기 신고자 중 훈련 대상자
2. 교육 일정 / 장소 가. 훈련 대상자(전역1-6년차) / 노고산 중로 · 중구훈련장(219연대 2대대)
3. 복 장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4. 휴대품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5. 유의 사항 가. 구파발 전철역(3호선) 1번 출구로 나와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34번 버스 탑승(왕복 버스 요금은 학교에서 지원(승차시 신분증 제시) \* 08:20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버스 탑승 (지연 도착자 버스지원 불가) 나.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 09:00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 (위병소 통제) 다. 예비군복 중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라.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마. 개인명단 확인/상세문의 : 예비군 연대 본부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가급적 삼가 \*\*\*
동국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47 ~ 8)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담]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TEL : 2260-3380 FAX : 2260-3385 http://www.writing.dongguk.edu
제3회 동국 우수 졸업 논문 지원 사업 공모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글쓰기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제3회 우수 졸업논문 지원 공모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 - 지원 대상 : 2008년 2학기가 졸업 학기로,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부생 - 지원 내용: 0명 각 30만원
■ 신청 ■ - 신청 방법: 다음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지원 공모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 - 신청 기간 : 2008년 9월 15일~10월 15일 - 결과 발표 : 2008년 10월 22일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문의 ■ 홈페이지(http://writing.dongguk.edu)를 참조하거나 글쓰기센터(226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동국관 M동)
2008년 2학기 제3기 보고서집중상담프로그램 지원 안내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지도해 주는 보고서 집중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출할 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의 준비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글쓰기 센터 연구조교들이 3회에 걸쳐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 - 지원 대상 : 2008년 2학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졸업논문 및 전공과목과 조별과제물은 제외) \* 특히 중간 및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발 인원 : 10명 내외(소정의 기법품 지급)
■ 신청 및 결과 발표 ■ - 신청 기간 : 2008년 9월 15일-2008년 10월 15일 -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kumiyu@naver.com) 혹은방문 제출 (신청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http://writing.dongguk.edu)에서 다운받거나 글쓰기센터를 방문하시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2008년 10월 17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10월 17일 오후 5시 글쓰기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화(226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행사장 조감도

# FUN FUN

## '디자인놀이러'

세계 최대 디자인 축제인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잠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국제적 나이,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기획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세계인들과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오감을 자극하는 디자인들의 향연이 펼쳐질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이에 디자인 올림픽의 여러 행사를 소개하고 문화서울의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한다.

편집자

이번 가을 서울시에는 디자인 놀이터가 생긴다. 다양한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형 시소부터, 부드럽고 재미있는 디자인을 만져 볼 수 있는 모래밭까지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디자인 서울'의 주요 정책 중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는 '최대' 그리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말랑말랑해진 디자인'으로 서울을 마음껏 변형시켜 보자.

### 네가지 색깔의 디자인 전시회

기본전시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의 주제인 'Design is AIR'를 대표하는 전시이다. 전시주제는 '공기처럼 경계 없이 흐르는 최신 디자인의 트렌드 보여주기'와 흔히 존재해 깨닫지 못하지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공기 같은 디자인의 면모 보여주기'이다.

전시는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야외 공원에 전시되는 텍스트 가든(Text Garden), 자연의 모습을 창조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에어 가든(AIR Garden) 전시 등 총

47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젊은 디자이너들의 발상으로 전시되는 '서울 디자인 나무'는 강남 아파트의 역사적 변천, 서울역을 둘러싼 삶의 기억들 등을 주제로 서울 디자인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더불어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서울의 비전을 보여주는 '서울시 디자인 비전'은 서울시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산, 강,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 변화상을 보여준다.

다양한 전시회들을 통해 살아 있는 디자인을 함께 호흡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색깔 있는 공기의 맛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가볼만 하다.

### 세계가 '디자인'으로 하나되다

참여전시에서는 세계 도시 디자이너들을 초대해 국내 신진 디자이너와 세계 디자이너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각 국가별 도시가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 도시의 모습을 전시하는 '세계 디자인 도시전'에는 밀라노, 토리노, 프라하, 뉴욕, 파리, 홍콩, 베이징 등의 도시·건축·의상 등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디자인을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디자인 탐구전'도 열린다. '디자인 탐구전'에서는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및 건축학과 학생들의 실험적 연구와 졸업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외에도 서울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산업대 등 여러 대학들이 참여해 디자인의 주제 및 내용, 전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시간 또한 마련돼 있다. 디자인에 대한 소통의 장은 활짝 열려 있다. 모

름지기 다다익선이라 했으니,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는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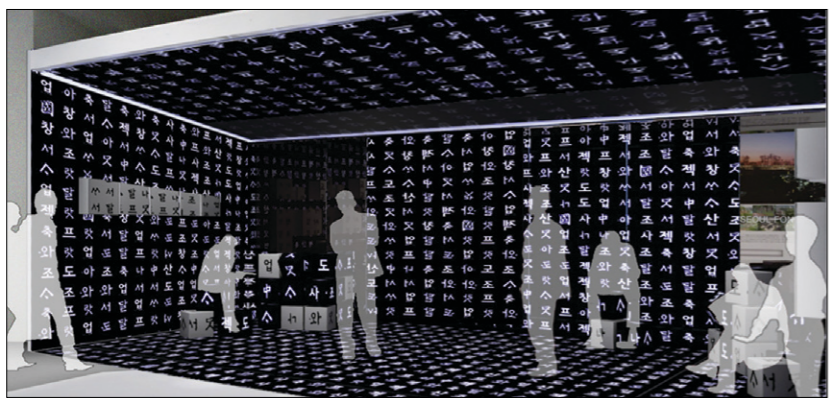
### 디자인 Festival을 즐겨라

서울디자인 페스티벌은 오감을 만족시켜 줄만한 풍성한 축제들로 가득한 '참여형 디자인 축제'이다. 내 손에 쥐어진 붓 끝에서 기막힌 디자인이 창조되는 '디자인 월(Design Wall)'. 그림에는 영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기를 망설였던 이들도 이 축제에서 만큼은 부담 없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디자인 월' 행사를 통해 다함께 이루어 낸 디자인들의 하모니를 기대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

한 가지 더, 매일 웃을 갈아입고 색다른 분위기를 내려 해도 내가 사는 서울이 매일 똑같이 지루하다면? 서울 시내 거리 곳곳을 마음껏 재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맛있는 도시의 거리를 분필로 꾸며보는 거리미술전시회, 예술 거리 '서울'의 화가는 바로 당신이다.

어릴 적 마냥 즐겁기만 했던 놀이터를 추억하며 이색적인 디자인 놀이터를 찾아보자. 형형색색의 디자인들이 오감을 자극하며 '디자인'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축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One world one dream의 꿈은 다시 한번 재현된다. 보다 유쾌하게 그려 낸 One world One design의 이름으로.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 '서울시 디자인 비전' 가상 전시관



▲ 세계 최대 설치미술인 '플라스틱 스타디움'

## 가을밤 수놓은 '목errick대제전'의 두 주인공

'청춘예찬' 제작 DUBS 박양지 기자

### 이 시대의 청춘들을 향한 '외침'



"젊은 청춘들이여,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세요?"

동국 영상 Festival의 '청춘예찬' 팀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따끔한 질문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이 청춘에게 고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낸 교육방송국(DUBS) 박양지(광고홍보2) 기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 영상의 기획은 '학점과 취업이란 문제가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자 임무는 아닐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으며 기획 취지를 말하는 박양지 기자.

'청춘예찬'이라는 영상물이 나오기까지, 전문가들의 인터뷰 섭외를 위해 매일같이 종종 거러야 했다. 때문에 영상 제작 후 청춘예찬팀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특별히 배웠다. '영상 제작을 위해 한겨레 홍세화 기획 위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고 대답도 듣기전에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하지만 홍세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라고 말하는 박양지 기자. 그들이 대답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세상은 소통하며 살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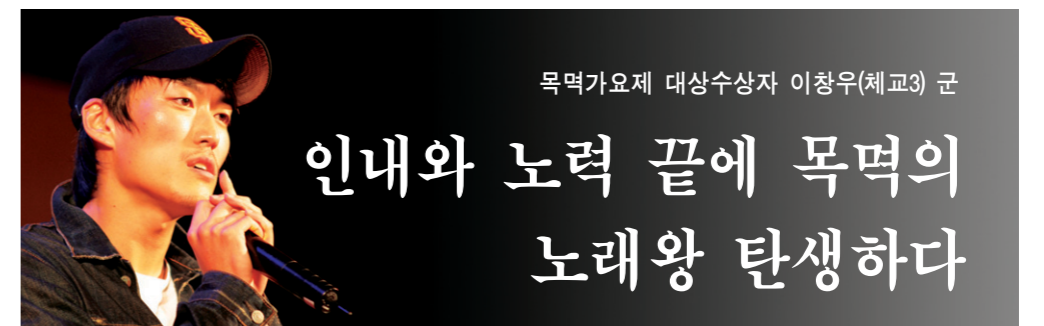
하는 공간인데 왜 되고 살겠느냐'는 뜻밖의 대답이었다.

학점과 취업,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골레이기 때문일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꿈꾸기도 전에 토익 책을 먼저 본다. 그런 현실에 대해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소통'을 통한 인간 네트워크 구축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쩌면 그녀의 말대로 토익 공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따뜻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이든 모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애정이 넘쳐나는 사회야말로 그녀가 진정 꿈꾸는 세계다.

흔히 우리는 '꽃다운 청춘'이라고 말한다. 따로 색을 입히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다. 제 물 만난 물고기가 활개를 치듯, 자유로운 청춘을 마음껏 펼쳐보자. '청춘예찬'의 메시지처럼.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목errick가요제 대상수상자 이창우(체교3) 군

### 인내와 노력 끝에 목errick의 노래왕 탄생하다

목errick대제전의 하이라이트였던 목errick가요제는 12팀의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끝까지 대상의 향방을 알 수 없었다. 동국인의 재능을 뽐냈음이 보여준 목errick 가요제, 그 빛나는 무대의 주인공인 대상 수상자 이창우(체교3)군을 만났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목errick가요제의 무대에서 만난 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대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이창우 군은 수상 소감 질문에도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감격했다. 그에게 대상의 영예를 안겨준 곡 '금지된 사랑'은 이 군이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에 맞는 곡을 부르기 위해 노력했던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덕분에 4년만에 복학한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줬다.

"무조건 열심히 했던 게 비결이었습니다" 목errick가요제 최고 영예의 비법은 바로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 노력도 조력자의 도움이 없었다

면 물거품이 됐을 터. 노래연습을 할 때마다 노래방 비용을 내주던 친구들, 그를 격려해주기 위해 밥을 사주는 친구까지 항상 그의 곁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이번 목errick가요제 본선에서는 어떤 팀이든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다. "모두가 라이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참가자들을 존중했다. 과연 대상수상자는 상금 100만원을 어디에 쓸까? 친구들에게 한 톨 살 것이라 예상을 깨고 이 군은 "아프신 아버지 치료비에 쓰고 싶다"고 했다. 복학생의 신분으로 학비도 벌며 아버지까지 모시는 그의 효성에 기자 또한 감격했다.

'금지된 사랑'을 열창하며 동국인들을 감동에 빠뜨렸던 이창우 군. 목errick가요제가 배출한 또 한명의 슈퍼스타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 세상이 그대와 다투려 하는가?

# 나는 세상을 다 못지 않는다

“ 세상이 혼란스럽고 나라고 어지러우며 절집안까지도 어수선한 이 시대에 눈 밝고 소리 맑은 불자들의 청법가를 들으신다면 붓다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가? ”

| 담백한 경전해설, 시원한 금강경 읽기 |



### 세상이 당신과 다투려 할 때 이 책을 보십시오.

신용산 숲 | 신국권 | 368쪽 | 값 12,000원  
ISBN 978-89-961004-4-7 03800

세상에 있는 위험을 보고 집착이 없는 경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산처럼 굳건하여 집착을 일으키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화를 내게 하는 것들에 화를 내지도 않으며, 결단코 동요됨이 없네.

도서출판 한결을 · 더는 동국대학교출판부의 자매브랜드입니다. 한결을 · 더

## 성공취업을 위한 짚지고 실용적인 완벽 가이드 북!!

Complete guide for gaining a right position

《성공취업전략 특강》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하며 쌓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근의 트렌드와 정보를 알려주고 학년별 준비전략, 직무선택, 면접, 인성·적성검사 등 취업실전전략을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매력! 성공취업을 위한 필수 아이템!!

권말 부록과 팀은 취업준비생들이 갖춰야 할 능력과 태도 등에 대해 경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조언을 들려준다.



▶ 베스트 면접 실전전략

84개 주요 기업의 면접공략 포인트!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노하우를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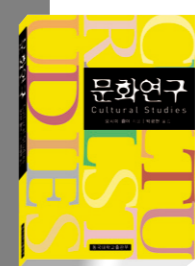
▶ 성공취업 전략특강  
남지현 지음 | 크라온권 | 324쪽 | 값 15,000원  
ISBN 978-89-961004-0-9 13320

동국대학교출판부의 최신간!!

#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는 '정치학'인 동시에 '시학'이다.



다원적 해석이 가능한 '문화'라는 분야를 깊이 있고 친절하게 논의하고 있다.  
- 문화가 생성되고 경험되어가는 장이란 무엇보다 일상생활이며, 문화연구란 그런 일상적인 문화실천에 대한 정치학인 동시에 시학이다!

작지만 파워 있는 책!!  
어려운 듯하지만 도전해볼 만한 책이다.

오시미 준야 지음 | 박광현 옮김 | 4x6판 | 245쪽 | 값 10,000원  
ISBN 978-89-7801-224-9 93300